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 동 지 침†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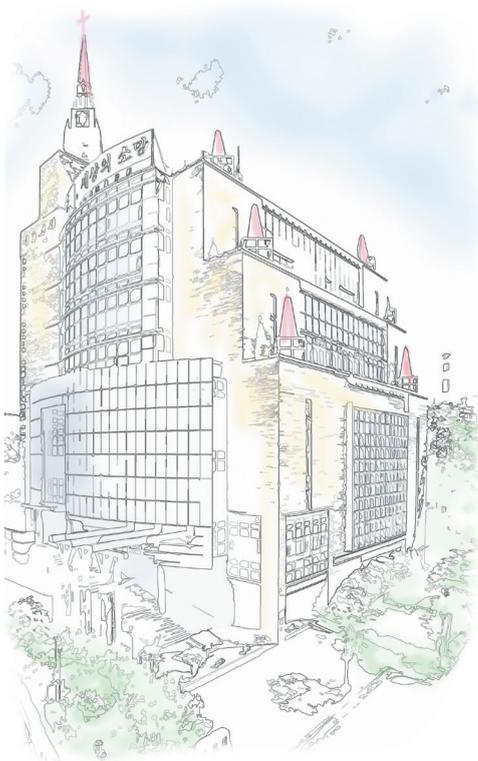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도피성 I

(여호수아 20:1 ~21:45)

이종윤 원로목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한 고향을 그리워하고 특색을 들며 자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하고도 자랑스런 마을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고향이라거나 사업상 연관된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다. 가나안 정복 시 열두 정탐꾼 중 갈렙은 헤브론을, 여호수아는 디밧세라를 보고 황홀해 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분배를 받았을 때 그 성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할 때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에겐 처음에 분깃이 없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흠여져야 했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그핫, 게르손, 므라리, 아론의 자손이 구별되어 네 가족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을 받았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등 6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었다.

이 6개의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48개 성 중에서 만든 것이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특별 명령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 명령은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세상에서 사는 이들에게는 사람을 죽였다 하면 그 정황이 어찌되었든 그를 죽게 한 자를 무조건 죽이려 했다. 피의 보복을 하려는 인간들의 악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일단 그를 피신케 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라는 것이다.

특별한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 자의 경우 진정한 의미에서 살인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고의적인지 아니면 과실인지를 묻는 것이다. 원한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또는 보지 못하고 무엇을 던진 것이 사람을 죽게 했다면 이런 자를 도피성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음을 그 성의 장로들에게 말하고 인정을 받아야 했다. 그 성에 들어간 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거나 그가 들어갈 때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그 후엔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가 성밖으로 나갔다가 피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 그 피흘린 죄는 없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결코 살인자를 보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한 사람은 죽임을 받아야 하지만 고의성이 없이 사고를 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생명 하나를 귀히 여김을 볼 수 있다.

도피성 제도가 주는 교훈을 찾아보자.

I. 인간가치를 강조한 것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한 세상에서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모든 일은 그 동기가 중요하다. 사람들

은 결과만 가지고 일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실은 선한 동기로 시작한 것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한 율례를 모세에게 주신 적이 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출 21:12 - 13).

우발적인 살인자인 경우 성소로 피하거나(왕상 1:51, 2:28)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므로 우리는 윤리적이어야 한다. 오늘날 살생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모르고 사람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다. 유해식품 제조,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 낙태, 마약 밀매, 비난과 저주 등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정치적 폭력이 모두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일에 반항하는 행위요 대적하는 악행이다.

II. 우주적인 법

도피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들 중에 거하는 외국인(객)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수20:9).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주적인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나라의 법이 자국민의 권익만을 보호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은 그렇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외국인으로 유대인과 같은 권리를 갖고 살 수 있다. 결국 인간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편협한 국수주의와 이기적인 지방색은 비성경적이다.

III. 신분주의적인 법

도피성 제도는 모든 시민생활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일반 시민법에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시민법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이다. 그러나 시민법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

미국의 지폐에는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그 나라 사회가 건설된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정도, 인간 관계도 하나님 신앙 위에 세워야 한다. 하나님 없는 사회는 상대적이므로 어느 개인이나 제도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진다.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오늘날 붕괴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가정 윤리나 사회 질서 문제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2018 사명자 대회 다음 주 발대식으로 시작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 · 전도의 사도로 불러주소서!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3:11)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

2018 사명자대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다. 교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거룩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한 2018년 사명자대회가 다음 주 찬양예배 시 발대식을 시작으로 교회설립기념주일 까지 50일간 계속된다.

서울교회는 현재 절체절명의 시기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설립된 서울교회는 세계복음화, 교회전국화, 문화기독교화를 지향하며 달려왔다. 지금은 비록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도로 서울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다시 재건하는 2018 사명자대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기도제목

첫째 :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신 하나님께 감사, 존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둘째 : 은혜의 복음증거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셋째 : 우리에게 주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주신 성령님. 복음에 빛진 자로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제 나 이만큼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성삼위 하나님께 바치게 하소서.

넷째 : 자비와 공의의 보혜사 성령님 서울교회가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소서.

다섯째 : 임위하신 심판 주 하나님 주님 발앞에 엎드려 비옵나니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날, 어린양의 피를 이마에 바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 판단하시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성도들이 찬양케 하소서.

여섯째 :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서울교회에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재환 최아영 김진숙 선순례 한세희 이태승 맹주은
소병국·심화숙 백도환 권사희 이관규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2018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예선(부서별) : 11월 4일(주일)
본선 : 11월 17일(토) 오후 1시
하박국 전장(1~3장)

2018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일정과 범위가 확정되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란다.

1. 교회학교별 성경 암송 대회(예선)
 - * 일 시: 11월 4일(주)
 - * 암송범위: 하박국 전장(1-3장) 단, 미취학 교육1국은 하박국 3장
 - * 신 청 :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 - 김혜연 집사
일반 장년 성도 - 사무국
2. 각 부서별 성경 암송 대회(본선)
 - * 일 시: 11월 17일(토) 오후 1시
3. 시상 및 발표 : 11월 18일(주일) 찬양예배시





2018 사명자대회

못다한 섬김, 기도로 갚겠습니다

유혜련 집사 (시애틀)

지금은 사명자대회 준비로 분주할 서울교회를 그리면서 펜을 듭니다.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있는 이곳 시애틀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서울교회는 바자준비, 목회자세미나, 사명자 대회로 한창 바쁠 때지만 올해 언니나 오빠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도 2018 사명자대회를 시작한다니 서울교회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저에게 사명자대회는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가을을 저의 잊을 수 없습니다. C 교회 대학부 예배를 마치고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찾아가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신단 말인가 정말 답답하고 어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분 두분 모이기 시작하였고 그 텅 빈 하얀 공간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박철훈 장로님, 이옥녀 권사님, 백영희 권사님 등 여러분께서 가져오신 방식이 다 동이 나고 당시 서희숙 집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정수 장로님께서 키보드를 가져오셨지만, 반주할 사람이 없다는 말에 전 공자는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찬양과 눈물의 기도가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서울교회, 이것이 사명자대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서울교회가 지금 큰 어



1991년 10월 첫 예배 때 찬양인도하시는 서희숙 권사님과 유혜련 집사

려움에 부닥쳐 있다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 이 사회의 방부제 같은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1991년 우리는 목회 세습을 거부하고 불의에 맞선 성도들이었고 이제 2018년 목사·장로 안식년제, 재신임 제도만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길을 깨닫고 기도에 힘을 쏟아야겠습니다. 지금 서울교회가 가는 길이 한국교회를 갱생시키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고 힘내주세요. 저도 서울교회를 못다 섬긴 것을 생각하며 새벽마다 무릎 꿇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해작전 기간에 서울교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대회를 통해 느헤미야처럼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에 또다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8 사명자대회

사명자대회를 기다리며

최형렬 장로

사명자!

말만 들어도 가슴은 쫓다

사랑하는 27살의 서울교회
고난 가운데서도 가슴은 쫓다

서울교회를 시작할 때처럼
뜨거운 사랑이 넘실거린다.

다니엘의 기도작전으로
주신 기도제목들 이루게 하소서

출애굽 대행진과 여리고 기도작전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불의와 불법과 거짓의 영은 떠나가고
진리와 공의로
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사
온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소서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으로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가 계속되게 하소서

천국시민양성,
만민에게전도,
빈약한자구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게 하소서

소생과 부흥의 길로 달려가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교육 1국 송편 만들기



지난 주일, 추석을 맞아 교육 1국(교육1국장 : 이계홍 장로)에서는 송편 만들기 행사를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색색의 쌀 반죽과 호박씨, 팥, 콩, 깨, 건포도, 조린 완두콩, 아몬드 등 다양한 소를 가지고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수술 장갑처럼 멋지게 위생장갑을 끼고 조물조물 무물러서 만든 송편은 서로 이쁜 도시락에 담아 집으로 가져갔어요.

동 정

■ 금주의 식사: 비빔밥

차영도 집사 정미연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모든 성도들이 공예배와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3.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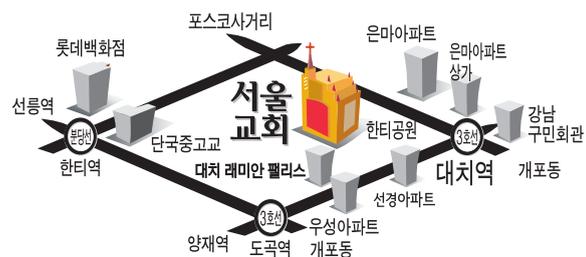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9월30일	주일	마 1-4		시 105-107	
10월01일	월	마 5-6		시 108-118	
10월02일	화	마 7-9		시 119	
10월03일	수	마 10-11		시 120-136	
10월04일	목	마 12-13		시 137-150	
10월05일	금	마 14-15		잠 1-6	
10월06일	토	마 16-18		잠 7-12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